



고흥군 동강면 대강 들녘에서 민·관·전경 300여 명이 태풍 '나리'로 인해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

/고흥=위직기자 jwii@kwangju.co.kr

태풍 '위파' 오늘 영향권

20일까지 강풍·폭우 피해 우려



제11호 태풍 '나리'(NARI)의 생채기가 채 아물기도 전, 제 12호 태풍 '위파'(WIPA)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방은 오는 20일까지 강풍과 폭우 피해가 또다시 우려된다.

태풍 '위파'는 ▲중심기압 930hPa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1m 이르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130km 해상에서 시속 30km의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강풍 반경은 420km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끼쳤던 소형급 태풍 '나리'의 두 배가 넘는다.



태풍 안이한 대응 피해 키웠다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전남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상당부분은 관계기관의 사전대비 부족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시간당 60mm 이상 쏟아진 '물 폭탄'을 감당하지 못한 하수 펌프장 시설과 진흙과 쓰레기가 꽂힌 하수관의 미 준설, 제때 개방되지 않은 수문 등이 침수 피해를 키웠던 것이다.

배수펌프장 용량 적어 폭우 감당 못해 하수관 준설 안돼 쓰레기 흙탕물 역류

조당 2t의 물밖에 방류할 수 없어 결국 저수지의 물이 범람해 읍내로 들어닥쳤다. 고흥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배수 펌프장은 시간당 50mm의 강수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만,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한 폭우는 이를 초과해 배수 펌프가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분당 600t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펌프 등으로 교체할 수 있게 예산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수용량을 초과, 빗물이 제때 빠지지 못했다. 벌교읍은 제1배수장(펌프 4대·분당 328t 배수)과 제2배수장(분당 256t 배수)이 있지만, 이틀간 384mm의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다. 벌교읍의 하수관거가 준설되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흙과 쓰레기 등이 쌓인 하수관이 막히면서 물이 역류한 것이다.

거 준설을 장마철 이전에 하면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오전 사이 192.8mm의 폭우가 내려 농경지 1.6ha가 침수된 화순군 능주면 일대 주민들은 지적선에 설치된 농업용 보(陂)의 수문을 한국농촌공사가 제때 개방하지 않아 침수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흥 앞바다 어선 전복 3명 실종

고흥 나로도 앞바다에서 선원 11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 3명이 실종됐다. 지난 17일 밤 10시30분께 고흥군 나로도 '탕건어' 남쪽 4.8km 해상에서 어선 선적 80t급 저인망어선 '207'급

장호'가 전복됐다. 사고 직후 선장 임모(48·여수시) 씨 등 8명은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나, 김모(39·부산시 서구)씨 등 나머지 3명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어수해경은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해 경비함 4척을 급파했지만, 태풍 '나리' 뒤끝 3~4m의 높은 파도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해역에는 18일 자정을 기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들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표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육장이 대낮에...

부하직원 폭행·여직원 성추행

전남지역 모 교육장이 대낮에 술에 취해 식당 앞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부속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육청은 지난 17일 오후 지역 교육청이 소재하는 지역의 모 아파트 앞 장어구이 식당에서 관내 교장장과 직사를 한 후 기사 정모씨를 불러 "있을 자리에 있지 않았다"며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했고, 부속실 여직원도 "너무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육장은 "너무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평소 술을 잘 안먹는데 술을 많이 먹어 실수를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울 뿐이다"고 말했다.

도박장 운영 조폭 등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도박장주인을 검거하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광주 M과 행동대원 양모(41)씨를 도박 개장 등 혐의로, 도박장을 발인 정모(39)씨 등 5명을 도박 혐의로 각각 불잡아 조사 중이다. 양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광주시 서구 광천동 S영업사 사무실에 스크린 도박장을 차려놓고 한 판 당 7%의 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1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빌려 준 도박 자금 600만원을 갚지 않는 등 정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대안 해결해 드립니다. 02-722-1282 www.kkpc.or.kr

다들 물어봐... KCC DS건설(주) KCC강도, 시스텔강도 생산·시공

25년 전 불륜 협박 50대女 실형. 25년 전 불륜 관계를 폭로하자며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하나투어 여행사 '고객님'은 '주인님'입니다. 1등 여행사. 광주에서 바로가는 제림관광. 코스여행 30대 무량기업! 9년 연속 해외여행 판매 1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